

# 建築士의 職能과 社会的責任

李 明 煥  
有信綜合設計公團 代表  
(本協會 理事)

## 1. 建築士의 職能

人間이 生活을 營爲하기 위하여 基本的이며 重要な 要素가 “衣食住”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人類文化의 發展過程에서 住居文化가 얼마나 重要な 原動力이 되어왔다는것도 周知의 事實일 것이다.

衣·食問題가 比較的 單純하다면 住居問題는 날이 갈수록 複雜多難하다. 이는 人間의 慾望이 無限임에 比例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分野에 從事하는 者의 比重은 決코 어느 分野에도 못지않은 重要的 意味를 갖게 되는 것이다.

建築學을 專攻하고 建築에 從事하는 職業人을 通稱하여 建築家라고 稱한다. 建築家は 國家에 따라 比重을 달리하며 職能의 限界가 差異를 갖게된다. 設計, 施工, 其他를 망라할 수 있는 建築家와 分担된 業務로 区分된 建築家の 形態 등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後者에 屬한다고 하겠다. (大體的으로 建築이란 広範圍하기 때문에 보다 有能한 建築家를 活用하기 爲하여 分担된 職能을 가진 建築家로 区分함이 國家나, 社会的인 面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建築家は 다음과 같이 区分이 된다고 하겠다.

첫째 建築士法에 依據, 資格을 認定받아 建築設計, 工事監理, 建築物鑑定業務를 할 수 있는 建築士

둘째 建設業法에 依據, 資格을 認定받아 建築施工에 從事할 수 있는 建設技術者

셋째 위의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建築家로서 教育, 研究, 修習, 行政 等 其他 部分에서 活躍하는者.

(이웃인 日本의 境遇를 볼 것 같으면 建築行政職에 從事하는者를 建築主事라고 하여 別途 資格考試制를 扞하고 있다.)

即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建築家를 建築士와 建設技術者(建築)로 兩分한 것이다.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分野를 担当하였기 때문에 創造的이며 主導的인 立場에서 建築에 從事하는 것이 第1義的인 職能이며 建設技術者는 建設業的인 技術分野에서 建築施工에 從事하는 것이 第1義的인 職能이라고 할 수 있다.

建築士法에서는 “建築物의 質的向上”이 主目的인데 비해 建設業法에서는 “適正한 施工과 建設業의 健全한 發展”이 主目的으로 되어 있다. 이는 建築士의 職能과 建設技術者의 職能의 差異는 勿論, 建築을 함에 있어 建築士의 任務가 얼마나 重要하며 公共性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美國같은 境遇 建築家協會에서는 建築家가 建設工事に 從事를 하게되면 自動的으로 協會에서는 其 建築家를 除名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이는 建築士의 任務가 公共性과 아울러 얼마나 公正해야 하는가를 短的으로 表現한 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建築士의 國家나 社会的인 面에서의 職能이란 個人的 利己에 앞서 이성과 같은 것이 가장 重要하며 또 重要視되어야 한다고 본다.

## 2. 建築士의 社会的責任

時代의 흐름에 따라 時時刻刻으로 變遷해가는 社会는 建築物에 對한 要求가 機能面이나 時間的인 面에서 緊迫하고 多種多様해가고 있다.

現代人の 生活이나 活動事項을 区分해볼 것 같으면 農村이나 漁村에 있어서는 生業의 性質上으로 보아 夜間의 住居用 以外에는 建物の 利用度가 比較的 적은 편이나 都市나 産業施設이 發展한 人口密度가 높은 곳일수록 夜間의 住居用으로도 利用度가 높으나 晝間使用의 比重이 높은 建물이 大部分이다. 即 建物の 利用度는 人口의 密度와 産業의 發展과 比例하여 높아가며 住居用으로, 業務用으로, 教育用 또는 慰樂, 社交, 其他 多方面으로 利用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代人の 生活은 建物を 떠나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狀態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建築物을 創造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各己 其目的하는 用途에 適合한 構造와 機能을 充足시켜 주어야 할 建築士에 對한 社会的인 要求는 큰 것이 아닐 수 없다.

建築士가 設計를 한다는것은 其社会를 設計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設計는 注文主人 建築主의 注文에 依하여 주어지는 範圍와 目的을 爲하여 建築士가 가지고있는 建築士의 知識과 技術과 經驗을 自身의 人格의 範圍안에서 一定한 設計期間동안 体内에 잉태하였다가 出産하는 産母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出産된 子息이 社会的 不良児가 된다는가 제구실을 못하는 無能児나 殺人鬼가 되어서는 안됨은 더 말할 나위 없는 不幸한 일을 建築士는 自覺도 해야겠다.

한개의 나무나 벽돌에도 生命이 있다. 適材를 適所에 使用하여 生命을 잘 活用할 建物は 같은 木造일지라도 20年 30년도 가기 힘든 것이 몇百年씩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建築物을 設計하기 爲해서는 一定한 報酬와 設計期間에 依해 設計圖書가 作成되어 建築主와 協議가 끝나는데로 工事に 臨하게 된다. 設計圖書에 依한 施工過程을 工事監理를 하는 建築士가 管掌을 하며 誘導함에 있어 中立의이며 公正한 立場에서 主導해 나가야 함은 建築士의 使命中의 하나이다.

한개의 建築物을 세운다는것은 其當時는 注文을 한 建築主의 財産이며 남이야 좋은 싫든間에 自己마음에만 맞으면 그만이란 말들을 흔히 한다. 그러나 歲月이 흘러가고 歷史가 바뀌짐에 따라 그建물이 存在하고 있는限 其建物の 建築主는 一定할 수가 없으며 無數한 사람들이 關係되는 것이다.

即 1個의 建築物이란 어느 特定한 個人的 所有物이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利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社会性を 排除할 수가 없게된다.

發展해가는 社会的 將來를 내다보고 언제나 그 社会에 適應할 수 있는 建物の 設計와 其建물이 주는 效果가 其社会에 좋은 影響을 끼칠 수 있다면 이를 創造한 建築士로서 더 바랄것이 있으랴. 建築士는 긍지를 自己의 이와같은 創造的인 價值에서 自負하여도 좋다고 본다.

그대신 이것이 얼마나 큰 社会的인 責任인가도 아울러 生覺해야 할 것이다.